

부산 항일 학생의 날 기념

백일장 원고 신청서

성명	안영훈	생년월일	2006.05.17.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54-2 부건빌라		
전화번호	010-3141-9596		
소속(학교)	동래고등학교		

제목 :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세계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 주변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실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와중에도 바뀌지 않는 것, 아니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애국심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꽃들을 피웠다. 처음에 일제는 그 꽃들을 꺾어 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꽃들이 꽃씨를 한반도 여러 군데에 흘날려 결국 한반도를 꽃으로 뒤덮었다. 1910년 8월 29일 씨를 심어 3.1운동이라는 새싹을 피우고 후에 물과 햇빛을 받고 꽃을 피운 후 결국 열매를 맺은 것이다.

35년간에 애국심이라는 비료가 독립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변화는 있어도 선조들의 애국심에는 변함은 없었다.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던 애국심이 이제는 스스로 열음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자신이 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전 세계인이 당연하다. 하지만 나라 사랑의 정도는 같지 않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애국가이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는 작아진다. 남들에 눈치를 보며 크게 부르지는 않는다.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를 부를 때 작아진다는 것은, 나라를 작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혼과 열이 담긴 노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선조들은 총과 칼을 들이밀어도 크게 외치던 대한 독립 만세를 정작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소심하게 외치고 있다.

애국심은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대다수가 국방력과 경제력을 언급한다.

하지만 애국심이 가장 중요하다. 국방력이 강해도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국방력을 절대로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애국심이 없다면 나라를 위해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특정할 때만 생기게 된다. 누군가가 국위선양을 할 때나, 우리나라에 관한 좋은 뉴스가 뜰 때 정도만 ‘와 우리나라 대단하네’라는 생각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이다.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급성장을 하였다. 선조들이 열심히 일궈온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망치는 것이다. 이런 국가에 살고있는 것은 분명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으로 볼 수 있다. 국위선양은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마음가짐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혼자서 여럿이 되고 여럿이 모이고 모여 국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애국심은 늘 존재하지 않는다. 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항상 나라를 위할 수 없는 것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익을 위해 힘을 쓴다면 사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익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요즘 좋아하는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프록케이머가 세계 대회에서 남긴 말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애국심에 적용시켜 본다면 애국심은 꺾여서는 안된다. 애국심이 꺾이게 된다면 나라가 꺾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나라에 부흥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므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날을 보고 싶다. 나라에 변화는 있어도 애국심에 변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